

중국도 IT제품 · 섬유 수출이 주력

무역협회, 2004년 IT 수출 2075억달러 ... 섬유 · 의류 흑자 658억달러

중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정보기술(IT)과 섬유 · 의류로 전체 수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무역협회는 12월6일 <중국의 주요산업 현황> 자료에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5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IT와 섬유 · 의류가 주력 수출산업으로 등장했다고 발표했다.

특히, 2004년 IT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46% 증가한 207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35%를 차지하는 등 중국 최대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해 한국을 추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

IT제품의 수입도 2004년 37% 증가한 1809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분의1에 육박했다.

섬유 · 의류산업의 수출액은 888억달러로 2004년 65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, 2005년 섬유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의 의류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

중국의 산업 중심은 1차, 2차 산업에서 2차, 3차 산업으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다.

2004년 중국의 국내총생산(GDP)은 13조6876억위안으로 1978년의 38배로 성장했으며 2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보다 5%p, 3차산업의 GDP 비중도 8%p 높아졌다.

2004년과 1978년의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2차산업의 취업자는 17%에서 23%, 3차산업 취업자는 12%에서 31%로 늘어났다.

<화학저널 2005/12/09>